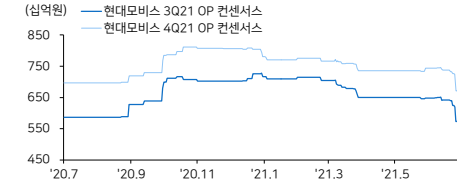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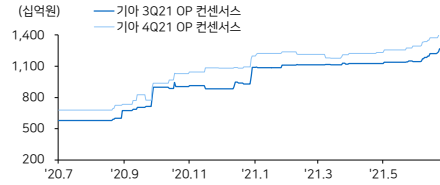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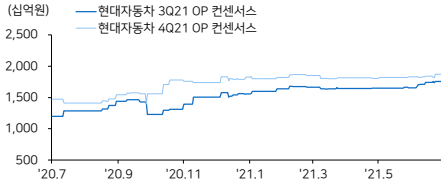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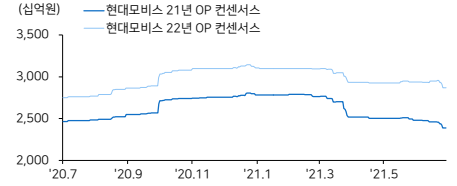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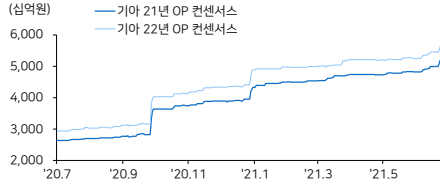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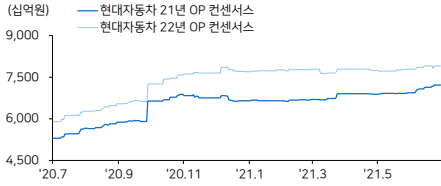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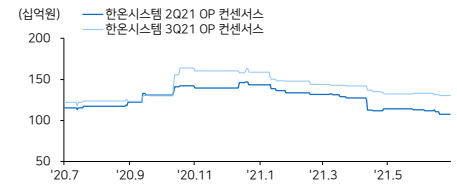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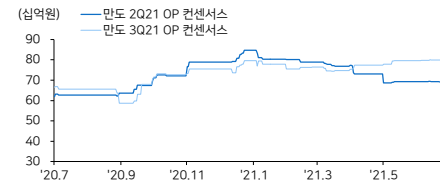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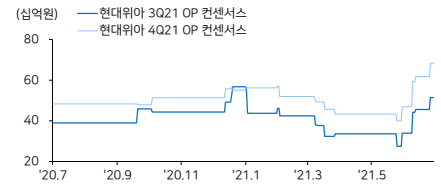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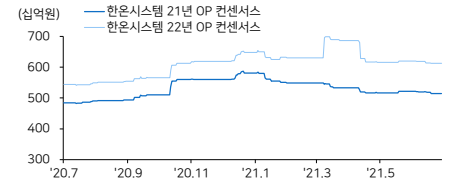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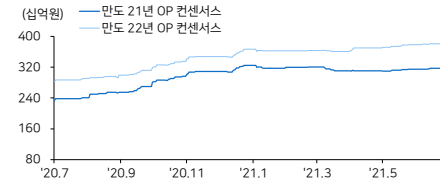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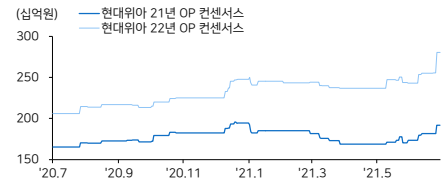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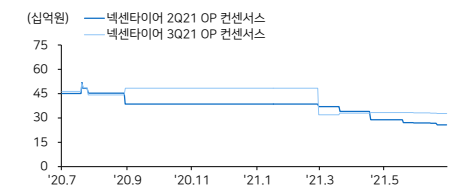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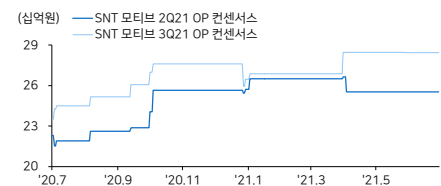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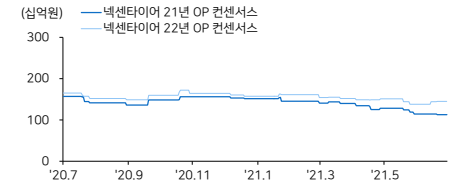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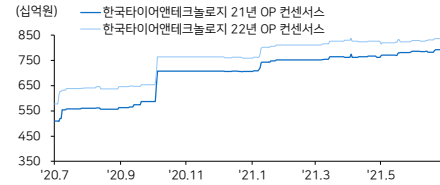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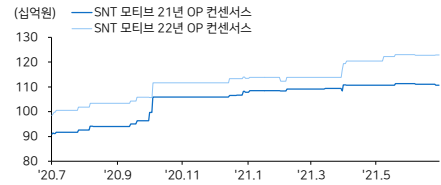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은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제네시스 'GV70' · 기아 '카니발' 전기차 변신...현대차, 전동화 전환 가속 (전자신문)

현대차그룹은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을 내년 출시할 예정이며, '23년 목표로 카니발 전기차 모델도 개발에 착수. GV70은 제네시스 브랜드로 선보이는 세 번째 전기차로,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 파생 모델이 될 예정.
<https://bit.ly/2Vts5X6>

현대차, 차 전량형 SUV '쿠스토' 인테리어 공개...중국 반전카드 가능성 ↑ (THE GURU)

베이징판대는 중국 전략형 MPV 쿠스토 인테리어나 공개함. 판매 목표를 연간 6만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 6·7·8인승 등 3가지 타입으로 선보이며 고객 선택권도 확대하기로 함. 판매 가격 등 세부사항은 출시일에 맞춰 공개할 예정
<https://bit.ly/2V8H09b>

정의선 도요에서 귀국, '모빌리티시장 호황이고 미국은 판매교정' (비즈니스포스트)

정 회장은 귀국 현장에서 기자들이 '해외 모빌리티시장을 어떻게 봤느냐'고 묻자 "차 판매는 지금 매우 잘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교정을 찍었다고 본다"며 "당분간 지속적으로 시장이 호황일 것이라고 생각했다"고 대답함.
<https://bit.ly/3xfN9v>

바이두, 2~3년내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30개 도시로 확대 (초이스경제)

바이두가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앞으로 2~3년 안에 30개 도시로 확대할 계획. 리엔훙 바이두 CEO는 '우리 목표는 로보택시를 이용하던 현재 인터넷 예약 차량보다 싸게 외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것'이라고 언급.
<https://bit.ly/3ih28mn>

현대차, 2024년 인도 보급형 전기차 출시한다...1500만원대 (THE GURU)

현대자동차가 오는 2024년 인도 전량형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. 경형 SUV 모델 '캐스퍼'를 기반으로 제작, '코나EV'보다 한 단계 낮은 수도권이 32.8%, 영남권이 28.4%로 충전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<https://bit.ly/3leZFzy>

현대차 아이오닉5 구매자 절반이 50대... "내년기관차와 비소" (연합뉴스)

현대차의 아이오닉 5 구매자 중 5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해 기존 내연기관차와 고객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2.8%, 영남권이 28.4%로 충전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<https://bit.ly/3fdmLXz>

"백악관, 2030년 자국 신차의 최소 40% 전기차 희망" (매일경제)

미국 백악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국 자동차 업체가 자발적으로 오는 '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최소 40%를 전기차로 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하였으며, UAW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함.
<https://bit.ly/3xmEM2R>

커넥티드 카 '빅뱅'...핵심은 'OTA' (뉴스타모)

커넥티드 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기술 'OTA'에 대한 관심도 급부상 중. 기존에는 테슬라만이 OTA를 활용한 차량을 출시했으나 최근 현대차를 비롯해 주요 수입업체들까지 OTA 기술 적용 대열에 속속 합류하는 모습.
<https://bit.ly/3j6Mv09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